

<p>논문 제목</p>	<p>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 청소년 도시폭력과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i>Study on the youth violence policy in France: Focusing on the youth urban violence and the school violence</i></p>
<p>저자</p>	<p>이영란, 김민 (2020)</p>
<p>핵심 주제</p>	<p>청소년 도시폭력,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학교분위기 조성정책</p>
<p>서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이 교육담론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 된 것은 ‘청소년폭력’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소년 비행문제와 도시폭력이 상호 연계된 사회문제인데, 이 이면에는 프랑스 대도시 외곽지역인 방리유(anlieue)의 열악한 사회환경과 취약주거지역인 시테(Cité)와의 상관관계가 놓여 있다. - 이 주거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집단거주 확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간계층(원주민)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집단과의 동거에 불만을 갖게 했고, 동시에 획일적 아파트 주거양식에 염증을 느끼던 이들은 대단지 주거지역을 벗어나 다시 자신들의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 도시 외곽이라는 지역개념인 방리유와 주거개념인 시테는 ‘단순 노동자계층=이주노동자=이민후세대 주거계토지역’이란 사회공식을 만들었으며, 프랑스가 장기 경제침체로 들어간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문제 현안인 실업문제, 이민 후세대의 프랑스사회 동화문제 및 이로 인한 청소년 사회일탈문제, 이에 따른 교육정책·도시정책·이민자정책의 문제, 사회계층과 문화갈등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프랑스 사회의 단면이 된다(이영란, 2010. 159). - 이후 시테지역의 폭력사건이나 범죄는 곧 이주 후세대가정의 청소년 비행과 연계되어 있다는 프랑스 사회의 고정관념을 빠른 시일 내에 고착시켰다. 학교폭력이라는 교육담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민자청소년=폭력집단’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서 방리유지역 시테 거주 ‘청소년 도시폭력’이란 용어가 프랑스 사회에 회자되었고, 이에 따른 대응으로 ‘치안담론의 일반화’가 프랑스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 그래서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도시폭력을 흔히 학교폭력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프랑스 교육부는 2010년 이후부터 학교폭력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 2013년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괴롭힘을 거부함’(Non au harcèlement) 캠페인은 모든 학교를 위시해 프랑스 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프랑스 교육부, 2013). 특히 이때부터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해결할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학교분위기(Climat Scolaire) 조성정책이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청소년 도시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이 탐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도시폭력 및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프랑스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예방차원의 교육적 대응이 학교분위기 조성정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은 초기에는 청소년의 도시폭력과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육부, 경찰과 법무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주체가 되어 왔다.
- Payet(1996)는 사회저층, 특히 이주민출신이 집단 거주하는 방리유 내 학교 교원의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 1990년대 중후반, 학교폭력이 프랑스 교육부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드바르뷔유(Debarbieux)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교육과 학교의 역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문화와 폭력을 접목시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드바르뷔유는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학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장의 역할과 교원 간 상호협력 여부, 둘째, 학교장-교원-학생 간 소통의 원활 여부, 셋째, 교원-학부모-지역사회 교육연계의 상호연계 여부(Debarbieux 1996a, 1996b)가 그것이다.
- 또한 드바르뷔유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을 도시폭력과 공공안전의 관점에서만 살펴보려했던 그간의 프랑스 사회담론을 ‘소소한 일상의 학교폭력’(Microviolence)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학교문화의 회복과 학교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 2010년을 전후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학교분위기조성에 대한 학계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학교분위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괴롭힘, 즉 일상적 학교폭력(Microviolence scolaire quotidienne)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괴롭힘의 대상이 된 피해자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 이렇듯 학교분위기에 대한 논의가 교육적 대응으로 구체화된 이유는 단순히 학교규칙 강화란 조처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폭력의 결과가 수반하는 범법행위가 청소년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런 맥락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게

	<p>되었고, 이후 학교의 본연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졌다(Broux & Saint-Denis, 2013; Le Masson & Montaya, 2014; Marsollier, 2016; Zanna et al., 2016).</p>
<p style="text-align: center;">본론</p>	<p style="text-align: center;">프랑스 청소년폭력에 대한 사회담론의 전환: 치안담론에서 교육담론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은 단어 그대로 장소 개념인 학교에서 학생에 의해 - 가해자건 피해자건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다. 흔히 학교폭력은 학생 대다수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폭력은 통상 ‘청소년 일탈행위’이자 ‘성장과정의 통과 의례’라는 통념으로 간주되곤 했다. - Benbenishty와 Astor(2008)는 “얼마나 많은 빈도와 상이한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또한 “나이, 성별, 학교분위기, 학교주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피해자 유형(victimization types)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음 7가지로 분류한다. ① 언어적 폭력(이름, 별명, 인종, 악담 등) ② 사회적 폭력(집단적 따돌림, 무시 등) ③ 간접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사진 및 정보유출, 근거 없는 소문 등) ④ 물리적 폭력(밀치기, 때리기,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심각한 구타 등) ⑤ 갈취/약취/훼손적 폭력(개인물건/공공기구 뺏거나 파괴하기. 반달리즘, 절도, 파괴 등) ⑥ 성적 폭력(언어적 폭력, 물리적인 성폭력 등) ⑦ 도구를 사용한 위협적 폭력 - 1997년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프랑스 사회의 핵심 공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는 치안과 공공질서 회복 차원에서 ‘국가적 공무’(affaire d’Etat)가 된 것이다. - 2002년 5월 교육부 장관 뤽 페리(Luc Ferry)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로 관용’(tolérance zéro)을 선언하였고, 2004년 4월 교육부 장관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칙에 따른 처벌을 강화시킴으로써 취약지역 소재 학교와 지역경찰과의 협업을 더욱 공고화 시켰다. -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프랑스 정치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학교폭력을 학교문제의 본질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도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본연의 기능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학교현장에 파견될 전문 인력의 양성, 학교구성원 간의 협업,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중고등학생들의 시위를 통해 청소년폭력이 프랑스사회의 주 담론으로 대두된 후 프랑스 정부(교육부)는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교육정책노선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5년 교육부 장학관 조르쥬 폰티노스(Georges Fontinos)가 <학교에서의 폭력, 1994년 현황: 분석과 권고사항>이라는 75쪽 보고서를 발행한 후부터였다. 이 보고서는 학교폭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후 정부의 정책적 노선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최초의 정부(교육부) 보고서’였다. - 1997년 학교폭력은 교육부와 내무부,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임을 확인하였고, 공권력 투입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당

	<p>행위로 비춰지면서 프랑스 사회 공론의 장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교육부장관으로 복귀한 알레그레는 ‘2차 학교폭력대책 플랜’(Deuxième plan de lutte contre la violence scolaire)을 발표한다. 학교처벌 및 진행 과정의 정당성(légalité des sanctions et des procédures)을 토대로 모든 과정과 단계를 문서로 공식화시켜 차후 교내규칙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학생이 학교폭력 사건과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침과 차이를 보여 준다. - 2001년 알레그레 후임으로 교육부 장관에 복귀한 자크 랑은 파리 주변 주(州)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 민감지역에 위치한 100여개 중학교 교원과 행정인력의 근무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정된 교원팀이 해당 학교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하였다. - 2006년 교육부장관 질 드 로비안(Gilles de Robien)은 학교폭력이 교육부를 위시로 한 모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확장을 주장하였다. - 2006년 8월 31일자 교육부 공문 ‘학내 폭력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서 학교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교직원의 법적인 보호 및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장,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구상의 합의가 언급되었다(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공문. 교육부, 2006). -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교원과 학생 간의 관계 개선, 학교분위기와 학교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도 이 시기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드바르비유의 연구결과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안정된 교원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교폭력 해결책을 외부와의 협력에서 찾기보다는 학교 본연의 기능과 교원 및 학교 내 교육전문가의 역할에서 찾았다(Debarbieux 1998, 2001,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사후대책 마련’이 아닌 ‘교육학적인 예방’이라는 방향전환에 기여하게 된다. - 2010년 이후 프랑스 사회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학교폭력양상과 예방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1년 ‘학교폭력 국제전망대’(l’Observatoire International de la Violence à l’Ecole)가 발행한 “일상의 억압을 거절하기: 학교 안에서의 괴롭힘 방지”(Refuser l’oppression quotidienne: la prévention du harcèlement à l’École) 보고서는 프랑스 사회에서 학교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학교폭력 유형을 성폭력, 사이버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젠더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구체화하였다(Rapport de Debarbieux, 2011). - 2012년에 들어서야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조사가 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원 및 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및 연수가 활성화되었으며, 학교분위
--	--

	<p>기 조성 정책이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올랑드 정부가 제정한 ‘공화국 초중등학교 재설립법안을 위한 프로그램과 방향설정법’은 바로 이 시기에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강조와 학교폭력정책이 예방차원에서 ‘학교분위기 조성’정책을 우선순위로 담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 구체적으로 이 법령의 기본노선은 ‘모두에게 호의적인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장소’라는 점으로 요약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강조하였다. - 환언하면 학교분위기 정책은 학교폭력예방 차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질, 교육의 질, 학교구성원 관계의 질 그리고 학교안전의 질을 통합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학교정책의 핵심’이 된 것이다. - 이는 2015년 ‘어떤 괴롭힘에도 거절하기’(Non au harcèlement)라는 프랑스 정부(교육부) 주도의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 2019년 현재 학교폭력과 학교분위기 조성에 대한 교육담론은 프랑스 학교폭력논의의 핵심 사안이다. 중앙정부(교육부) 내 주 교육청 간 학교분위기 연구부서(Département Inter-academique du climat scolaire)가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건강한 학교분위기 형성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 프랑스 청소년폭력의 사회적 담론의 전개과정과 특징은 청소년 도시폭력으로 시작한 이후 학교폭력이란 교육적 담론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이같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폭력이란 현상 자체가 외부의 힘을 통한 해결보다는 학교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고 동시에 학교 내 학생의 중요한 보호자이자 협력자인 교원의 역할과 학교 구성원 간 관계의 질 회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p>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처벌일변도의 강경대응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의 접근이 결국 효과적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 변화는 강경한 처리방안의 미미한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부터였고, 결국 예방이 최선이란 점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받고 나서 학교분위기 조성정책이란 사전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때때로 처벌이 문제의 쉬운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결국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란 점을 프랑스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사전예방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시 하지만 실제 대응의 장면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 예방의 접근을 이루어야 할까? 프랑스의 ‘학교분위기 조성정책’이 어찌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청소년폭력의 사전 예방은, 단순히 폭력현상에 초점을 맞춰 사전예방책을 구안할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청소년의 삶, 그 소소한 일상으로의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따스한 스밈’의 효과에서 비롯될 수 있다.

	<p>- 프랑스 정부는 학교폭력이란 청소년폭력 현상을 단순히 폭력의 하나, 혹은 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삶의 소소한 일상의 하나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 학교기능의 회복, 구성원 관계 간의 질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부르짖지만 사후 처리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할 프랑스 사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p>
<p>기타</p>	<p>※ 본 논문은 저작자의 동의 및 허락을 받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p>